

‘현장에서 답을 찾다’ 시민과 소통

우범기 전주시장,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개최… 호성동 시작으로 35개 동 순방

우범기 전주시장이 35개 동을 찾는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첫 일정으로 도·농 복합동인 호성동을 찾았다.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혁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시장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범기 시장은 21일 호성동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호성동 통장과 주민자치협의회, 기타 자생단체 임원진들과 마주하는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첫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행사는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동 현황 보고 △시장운영방향 공유 △시민과의 대화 등 순으로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다.

정문구 동장은 호성동을 도농 복합동으로 도시의 모습뿐 아니라 농촌의 모습까지 공존하는 지역으로 소개했다. 동부대로를 끼고 있는 호성동에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전주의 큰 꿈을 실현할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로 언급했다.

시는 지난 8일 산란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2025년 시장목표를 호성동 시민들에게 공유했다. 올해 시는 시장목표인 ‘확실한 변화! 함께 여는 전주의 큰 꿈!’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민생경제 위기 극복(민생) △미개 광역도시 대전환(도시) △강한 경제 일자리



우범기 전주시장은 21일 호성동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호성동 통장과 주민자치협의회, 기타 자생단체 임원진들과 마주하는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첫 일정을 소화했다.

도시(경제) △글로벌 으뜸 문화산업(문화) △일상 속 신바람 복지(복지)의 5대 분야, 18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우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전주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및 지역 현안, 주요동향 등에 대해서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시민들은 완주로 구간 인도 개설 및 소양천변로 가로등과 CCTV 설치, 지행당길에서 동부대로로 진입하는 불법 좌회전 문제 등 다양한 현장 민원을 제기했다.

또 다른 시민은 호성동의 도시공원을 으르씨의 역할을 해왔던 건지산의 공

원들이 공원일몰제로 인해 공원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즉시 시장 가능한 부분은 즉각 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돼야 하거나 장기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갈 방침이다. 또 해결 여부 및 해소 방안을 소중한 의견을 제시한 시민에게 전달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우 시장은 이날 첫 일정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전주시 35

개 동을 차례로 방문해 시민들과 만남을 이어간다. 전주 발전을 위해 시장과 시민이 만나는 동 순방 일정은 오는 24일 서신동으로 이어진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025년도는 그간 민선 8기에서 준비했던 전주의 대변혁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상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지킬 것을 확실히 지키고 바꿀 것은 과감히 바꾸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설 명절을 맞아 홀로 계신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대접했다.

이지콜 운전원들, 따뜻한 나눔

홀로 어르신 위해 150만원 성금 전달… 떡국 대접 행사 후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설 명절을 맞아 홀로 계신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대접했다.

21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 교통약자지원부 직원들은 덕진노인복지관과 금암노인복지관을 찾아 이들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1만 원의 행복’ 후원 행사 성금 기탁

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을 흔쾌히 기부했다.

공단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지콜 특장 콜택시 63대와 어울림 순환버스 4대, 전용 임차 택시 30대 등 총 97대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연상 이사장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해 준 직원들이 참 고맙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건축 토목업체인 동아목재는 21일, 설 명절을 맞이해 여의동 주민센터를 찾아 백미 10kg 100포(25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동아목재, 사랑의 백미 100포 기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건축 토목업체인 동아목재(대표 이천승)는 21일, 설 명절을 맞이해 여의동 주민센터(동장 송해인)를 찾아 백미 10kg 100포(25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백미는 관내 장애인 가정, 홀로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천승 동아목재 대표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위치한 동고사는 21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백미 10kg 20포를 풍남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탁했다.

승암산 동고사, 설맞이 백미 20포 기탁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위치한 동고사(주지 법륜스님)는 21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백미 10kg 20포를 풍남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탁했다.

동고사는 매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백미를 기탁하여 이웃 사

람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이번 나눔도 이러한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동고사 주지 법륜스님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통시장 민·관 합동 점검

전주시, 설 명절 대비 화재 안전관리 점검·안전수칙 교육 등 진행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리는 전통시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펼쳤다.

전주시는 21일 남부시장과 모래내시장 등 전통시장을 찾아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점검은 운동목 부시장을 비롯해 재난안전과, 민생사회적경제과, 완산·덕진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자문단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점검 과정에서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병행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화재 알림 시설 상태 점검 △소화기 등 소방 시설의

적정 비치 여부 △소화전 및 방화 셔터 정상 작동 여부 △불법 적치물 제거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이 포함됐다.

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상인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선다.

운동목 전주 부시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생활 터전이자 상업의 중심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라며 “합동점검을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 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상인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